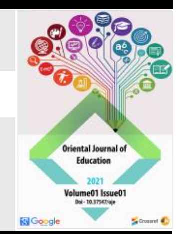
DOI: https://doi.org/10.37547/supsci-oje-05-03-07 Pages: 50-58

Oriental Journal of Education



ORIENTAL JOURNAL OF EDUCATION

journal homepage:
https://www.supportscience.uz/index.php/oje



PHONOLOGICAL PHENOMENA IN LEARNING UZBEK AND KOREAN

Sadoqat Bobomurotova
Uzbekistan state world languages university
Tashkent, Uzbekistan
E-mail: sadoqatbobomurotova@gmail.com

ABOUT ARTICLE

Key words: Uzbek, Korean, phonological phenomenon, assimilation, addition, omission.

Received: 26.04.25
Accepted: 28.04.25
Published: 01.05.2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phonological phenomena in Uzbek and Korean. For linguistic phonology, pronouncing it correctly is the beginning of learning a language. In phonology, there is not only phonology but also phonological phenomena. Uzbek and Korean phonological phenomena are diverse and do not follow each other.

In this study, the phonological phenomena of Uzbek were investigated in the order of assimilation (tovush o‘zgarishi), addition (tovush qo‘shilish), and omission (tovush tushishi). Korean phonological phenomena were examined in the order of liaison, nasalization, vocalization, hardening, palatalization, aspirated consonantation, addition of **“ㄴ”** and omission of **“ㅎ”.**

O‘ZBEK VA KOREYS TILLARINI O‘RGANISHDA FONOLOGIK HODISALAR

Sadoqat Bobomurotova
O‘zbekiston davlat jahon tillari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E-mail: sadoqatbobomurotova@gmail.com

MAQOLA HAQIDA

Kalit so‘zlar: o‘zbek tili, koreys tili, fonologik hodisa, assimilyatsiya, tovush qo‘shilishi, tovush tushishi.

Annotatsiya. Mazkur maqolaning maqsadi o‘zbek va koreys fonologik hodisalarining xususiyatlarini aniqlashdan iborat. Til fonologiyasi tilni to‘g‘ri talaffuz qilishni o‘rganishning boshlanishidir. Fonologiyada fonologik hodisalar bilan bir qatorda fonologik o‘zgarishlar ham mavjud. O‘zbek va koreys fonologik hodisalari turlicha va bir-biriga bog‘liq emas. Ushbu tadqiqotda o‘zbek fonologik

hodisalari assimilyatsiya(tovush o‘zgarishi), tovush qo‘shilishi va tovush tushishi tartibida ko‘rib chiqiladi. Koreys fonologik hodisalari artikulyatsiya, palatalizatsiya, fonatsiya, “ㄴ” qo‘shilishi va “ㅎ” tovush tushish tartibida aniqlanadi.

ФОНЕТИЧЕСКИЕ ЯВЛЕНИЯ ПРИ ИЗУЧЕНИИ УЗБЕК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Садокат Бобомуротова
Узбек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мировых языков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E-mail: sadoqatbobomurotova@gmail.com

О СТАТЬ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узбекский, корейский, фонологическое явление, ассимиляция, дополнение, упущение.

Аннотация. Целью дан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выяснение особенностей фонологических явлений в узбек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Для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фонологии правильное произношение - это начало изучения языка. В фонологии существует не только фонология, но и фонологические явления. Узбек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фонологические явления разнообразны и не следуют друг за другом.

В эт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были исследованы фонологические явления узбекского языка в порядке ассимиляции (tovush o‘zgarishi), сложения (tovush qo‘shilishi) и пропуска (tovush tushishi). Корейские фонологические явления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в порядке связности, назализации, вокализации, затвердевания, палатализации, аспирационной консонантации, добавления “ㄴ” и пропуска “ㅎ”.

우즈베크어와 한국어 학습의 음운 현상

초록

본 연구에 목적은 우즈베크어와 한국어 음운현상 특징을 알아볼 데 있다. 언어 음운론은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이 언어 배우게 시작이다. 음운론에서 음운뿐만 아니라 음운현상도 있다. 우즈베크어와 한국어 음운현상은 다양하고 서로에 따라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우즈베크어 음운현상을 동화(tovush o‘zgarishi), 첨가(tovush qo‘shilish), 탈락(tovush tushishi) 순으로 알아보았다. 한국어 음운현상을 연음,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격음화, ‘ㄴ’첨가와 ‘ㅎ’ 탈락 순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양 언어를 연구하는 있는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즈베크어, 한국어, 음운현상, 동화, 첨가, 탈락.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의 음운 변동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음운 변동이란 한 형태소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해당 형태소의 일부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발음의 용이성을 높이고, 보다 자연스럽고 경제적인 발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신성철[신성철, 2015: 32]은 음운 변동을 '의미를 구별하는 음소가 특정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음소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 모든 언어에는 고유한 음운 변동이 존재하며, 우즈베크어와 한국어 또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음운 변동 현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언어의 음운 변동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 언어의 음운적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언어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의 음운 현상 특징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우즈베크어의 주요 음운 변동 유형으로는 음운 동화, 음운 첨가, 음운 탈락 등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주로 연음, 구개음화, 격음화,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ㄴ' 첨가, 'ㅎ' 탈락 등과 같이 자음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특히, 우즈베크어에서는 한국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들이 대부분 관찰되지 않는다. 대신, 우즈베크어에서는 한국어와는 다른 방식의 다양한 형태의 동화 현상과 어말 무성음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언어의 음운 체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달했음을 보여주며,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각 언어의 음운적 특징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1 우즈베크어 음운 현상 특징

우즈베크어의 음운 변동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동화(tovush o‘zgarishi), 첨가(tovush qo‘shilish), 탈락(tovush tushishi)[Azizov O, 1996:83]으로 구분되며, 각각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동 현상이다. 동화는 한 음운이 주변 음운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발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첨가는 기존에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 탈락은 특정 음운이 생략되어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첫째, 동화(tovush o‘zgarishi)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화 중에 자음과 자음이나 모음과 모음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음운현상이 있다. 이 동화는 우즈베크어로 'assimilatsiya' 라고 한다. 여러 가지 assimilatsiya가 있다.

1.1 앞 음운은 뒤에 온 음운을 바꾸는 현상을 우즈베크어로 progressiv assimilatsiya라고 한다. ‘Progressiv assimilatsiya’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 yot**d**i→yot**t**i(td→tt) U uxlashga yotdi [yotti]. 그는 잠을 자로 누었다.

1.2 뒤에 온 음운은 앞에 온 음운을 바꾸는 변동은 regressiv assimilatsiya이며 이의 예문은 다음이다.

예. izsiz→issiz(zs→ss): U izsiz[issiz] yo‘qoldi. 그는 흔적도 없이라 사라졌다.

1.3. 마지막으로 distant assimilatsiya 음운 현상 동화는 앞에나 뒤에 오는 자음 음운에 서로 영향을 미치다.

예. soch→choch(s→ch). Sochim[chochim] oqardi.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2. 동화 현상 중에 단어에서 온 유사한 음운 중 하나가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은 우즈베크어로 dissimilatsiya이다. 동화 dissimilatsiya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birorta→bironta (ror → ron) Birorta kishi keldimi? 누구나 왔어요?

3. 동화 중에 jaranglilarni jarangsizlanishi 제일 많이 이루는 현상이다. 동화 jaranglilarni jarangsizlanishi는 유성음을 무성음으로 바꿔 발음하는 음운현상이다. **예.** maktab→maktap (b → p). Men maktabga[maktapga] bordim. 저는 학교에 갔다.

4. 모음 동화(unli tovushlar o‘zgairishi)는 3가지가 있다.

4.1 ‘a’를 ‘o’로 바꾸는, 모음 동화에서 ‘a’는 ‘o’로 바꾼다.

예. ‘a→o’ sayl**a**→ sayl**o**v. 투표하다→투표

4.2. ‘o’를 ‘a’로 바꾸는 음운 현상이다.

예. ‘o→a’ y**o**sh→y**a**sha. 살→살아

4.3 ‘i’는 ‘u’로 변동되는 현상이다.

예. i→u to‘qi→to‘quv. 둘째, 첨가는 우즈베크어로 tovush ortishi이라고 부른다. 우즈베크어 첨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첨가 proteza 단어 앞에 이루어진 음운 현상이다. 이 때는 모음만 첨가된다.

1.1 순우즈베크말에서 옛날에 공명음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일부 ‘r’로 시작하는 단어에서는 모음에 첨가된다.

예. ruza→o‘ruza. 라마단.

1.2. 외래어에 중 첫 음절에 두 개 이상 자음으로 시작할 때도 모음이 첨가된다.

예. shkaf→ishkop. 가구.

2. 중간에 첨가되는 음운 현상은 우즈베크어로 epenteza이다. Epenteza도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1 먼저 단어 중간에 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은 외래어에서만 이룬다.

예: traktor → tiraktir. 트랙터.

2.2 다음으로 두 모음 음운이 같이 올 때 자음에 첨가로 이루어지는 음운 현상이다.

예. soat→sog'at. 시계

2.3 마지막으로 자음은 쌍자음으로 첨가 되는 음운 현상이다.

예. *isi+q →issiq.* 덥다.

3. 현상 Epiteza가 단어 끝에 첨가되는 현상이다. 단어 마지막 음절에 자음 'sk, nk'와 끝나는 단어들에서 나타난다. 예문. tank → tanka. 탱크.

마지막 셋째는 탈락 (tovush tushishi)이다. 탈락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단어에 앞 음운에 탈락되는 현상을 우즈베크어로 prokopa 또는 ankopa이라고 부른다.

예: yilon →ilon

2. Sinkopa는 단어 중간에 탈락 되는 현상이며 어간 형태소에 접미사를 붙이면 마지막 음절로 이동하여 어간의 모음이 탈락된다.

예.burun→burnim 코-제 코. 또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고 탈락된다

예. pastda → pasda. 밑에

3. 단어 끝에 탈락 되는 현상은 Apoko이다.

3.1 먼저 자음 'n' 후에는 자음 'd' 올 때 탈락되는 현상이다.

예. baland →balan. 높다.

3.2 자음 'sh' 뒤에 오는 자음 't' 가 탈락 된다.

예. g'isht →g'ish. 벽돌.

3.3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면 모음이 영향을 미치고 자음에 탈락되는 음운 현상이다.

예. podshoh→podsho.

4. 모음과 모음을 만나고 탈락되는 음운현상이다. 우즈베크어로 Eliziya이라고 부른다. 합성어에서만 모음 하나가 탈락된다.

예. ayta+oldi→aytoldi. 말했다.

앞서 우즈베크어의 음운변동 규칙을 알아보았다. 위에 살펴본 음운현상밖에도 우즈베크어에 여라 까지 음운 현상 있으나 본고에서 제일 중요한 음운현상만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 한국어 음운현상 규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2.2 한국어 음운 현상 특징

앞에서 우즈베크어의 음운 현상을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다양한 음운 변동이 존재하며, 이는 발음의 자연스러움을 높이고 원활한 음운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음운 변동 유형으로는 연음,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격음화, 'ㄴ' 첨가, 'ㅎ' 탈락 등이 있다.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때, 앞 음절의 받침이 자연스럽게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비음화는 비음(ㄴ, ㅁ)과 만나면서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과정이며, 유음화는 'ㄹ'과 특정 음운이 결합할 때 더 자연스럽게 발음되도록 변화하는 현상이다.

또한, 경음화는 평음(ㄱ, ㄷ, ㅂ 등)이 특정 환경에서 강하게 발음되는 현상이며, 구개음화는 'ㄷ'과 'ㅌ'이 'ㅣ' 모음과 결합할 때 'ㅈ'과 'ㅊ'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격음화는 예사소리가 특정 환경에서 거센소리(ㅊ, ㅋ, ㅍ, ㅌ)로 바뀌는 변동이며, 'ㄴ' 첨가는 일부 단어에서 'ㄴ'이 추가되어 발음되는 현상, 'ㅎ' 탈락은 발음의 편의를 위해 'ㅎ'이 생략되는 음운 변동을 가리킨다.

이러한 음운 변동들은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 흐름을 유지하고, 문장 속에서 음운 간 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음운 변동이 한국어 발음 및 학습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즈베크어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1. 연음에서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할 때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한다.

예. 홑받침: 옷이[오시], 옷을[오슬].

쌍받침: 깎아[까까], 있어[이써].

겹받침: 앉아[안자], 흙에서[흘게서].

2. 비음화는 비음에 의하여 인접한 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음운현상이다. (가) 개념

2.1. 파열음인 [ㄱ, ㄷ, ㅂ]이 비음 [ㅁ, ㄴ] 앞에서 비음 [ㅇ, ㄴ, ㅁ]로 바뀌는 음운 현상 비음동화이다.

2.2. 비음 [ㅁ, ㅇ] 뒤에 오는 [ㄹ]가 [ㄴ]로 바뀌는 음운 현상은 'ㄹ'의 비음화이다.

(나) 파열음의 비음화(비음동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ㅁ, ㄴ] 앞에서 비음에 동화되어 [ㅇ, ㄴ, ㅁ]로 발음된다. 역행 동화의 일종이다.

예. 받침-ㄱ→ㅇ 먹는[멍는], 국민[궁민]

받침-ㄷ→ㅁ,ㄴ 닫는[단는], 겉문[건문]

받침-ㅂ→ㅁ 잡는[잠는], 앞마당[암마당]

(다) 유음의 비음화 ('ㄹ' 비음화)

예. 받침-ㄱ,ㅇ,ㅁ,ㅂ→ ㄹ⇔ㅇ,ㄴ 석류[성뉴], 대통령[대통녕]

ㄱ,ㅇ,ㅁ,ㅂ→ ㄹ⇔ㅁ,ㄴ 담력[담녁], 압력[암녁]

3.음절 한자어의 경우, 파생어에서 유음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예. 받침-ㄴ→ㄹ→[ㄴ-ㄴ] 의견란[의견난], 생산량[생산냥]

3. 유음화는 일정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ㄴ'이 유음 'ㄹ'의 영향 때문에 'ㄹ'로 동화되는 음운현상이다.

예. 받침 ㄹ(ㅀ, ㄾ)→ㄴ→ㄹ-ㄹ 칼날[칼랄], 닳는[달른], 핥는[할른].

받침 ㄴ→ㄹ→ㄹ-ㄹ 난로[날로], 분량[불량].

4. 경음화

평음 [ㄱ,ㄷ,ㅂ,ㅅ,ㅈ]가 경음 [ㄲ,ㄸ,ㅃ,ㅆ,ㅉ]로 바뀌는 발음하는 현상은 경음화이다.

'ㄱ, ㄷ, ㅂ'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물론이고 'ㄲ, ㅋ, ㄳ, ㄺ', 'ㅅ, ㅆ, ㅈ,ㅊ, ㅌ', 'ㅍ, ㄼ, ㄿ, ㅄ'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ㄱ, ㄷ, ㅂ'으로 끝나지 않아도 종성에서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경우 동일한 성격의 경음화가 적용된다. 이러한 음화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적용되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예. ㄱ,ㄷ,ㅂ,ㅅ,ㅈ→ ㄲ,ㄸ,ㅃ,ㅆ,ㅉ 독감[독깜], 깍두기[깍뚜기], 국밥[국빱], 있던[읻떤], 솥전[솓쩐].

5. 구개음화.

받침 'ㄷ, ㅌ, ㄾ'이 'ㅣ'나 반모음 '**i**'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조사나 접미사)와 만나면 'ㄷ, ㅌ'이 구개음 [ㅈ, ㅊ]로 바뀌는 현상은 구개음화 현상이다.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경우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받침 ㄷ,ㅌ,ㄾ→ㅈ,ㅊ 굳이[구지], 같이[가치], 벼훑이[벼훌치].

받침 ㄷ→히→ㅊ 닫히다[다티다-다치다]

6. 격음화

격음화현상 또는 거센소리되기라고도 한다. 평음 'ㄱ,ㄷ,ㅂ,ㅈ' 등이 앞이나 뒤의 'ㅎ'을 만나서 'ㅋ,ㅌ,ㅍ,ㅊ' 격음 등이 되는 현상이다.

예. 국화[구콰], 읽히다[일키다], 굿하다[구타다], 입학[이팍], 앉히다[안치다]

7. 'ㄴ'첨가㈎

한국어의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성할 때,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가 'ㅁ, ㄴ'으로 시작되면 [ㄴ]가 첨가되고, 앞 음절의 발음과 상관없이 뒤에 오는 모음 'ㅣ'나 반모음 '**i**'로 시작될 때에는 [ㄴ] 또는 [ㄴ] [ㄴ]로 발음하는 현상이다.

예. 막일[망닐], 꽃잎[꼰닙], 맨입[맨닙], 담요[담뇨]

8. 'ㅎ' 탈락

'ㅎ' 탈락 어간이 'ㅎ'로 끝나는 용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어간의 'ㅎ'는 탈락한다. 'ㅎ' 탈락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오는 경우 'ㅎ' 탈락 일어난다.

예. 낳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2. 한자어, 합성어 등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 유성자음(ㄴ,ㄹ,ㅁ,ㅇ)과 모음 사이에 ㅎ이 놓일 때 'ㅎ' 탈락.

예. 겸하고[겸하고/겨마고], 전화[전화/저놔], 실학 [실학/시락], 철학[철학/처락].

앞의 발음만 표준발음으로 인정되고, 2뒤 발음은 그렇지 않다. 이는 현실 발음에서 그런 양상이 보일 뿐이다.

'ㅎ' 탈락이 문제에서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 자음군 단순화와 함께 나온다. 왜냐하면 겹자음에서 'ㅎ'이 탈락할 때의 모습이 자음군 단순화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앓니[알리], 끊니[끈니] 등을 자음군 단순화지만 앓아서[아라서], 끊어서[끄너서] 등은 **'ㅎ'** 탈락이다.

위에서 한국어 음운현상을 알아보았다. 이에 위에도 한국어 음운현상에 **'ㅅ'** 첨가,모음동화, 모음 축약, **'ㄹ'** 탈락 등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크어와 한국어 음운 현상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우즈베크어와 한국어 음운현상의 특징만 살펴보았다. 다음 연구들에서 양 언어의 특뿐분만 아니라 대조, 오류 양상 등을 살펴본 계획에 있다. 이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우즈베크인 학습자나 양 언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우즈베크어의 경우 대표적인 음운 변동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즈베크어의 음운 규칙이 단지 세 가지로만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어에서는 연음, 구개음화, 격음화,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ㄴ' 첨가, 'ㅎ' 탈락 등과 같은 주요 음운 변동 현상이 존재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음운 현상이 관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운 변동 현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두 언어의 음운 변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학습자의 오류 양상 및 사용 양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본 연구가 우즈베크어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두 언어의 음운 변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발음을 습득하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권수미. (2021). **교재 분석을 통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 김정연. (2018).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특성 연구: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3. 신성철. (2015) 원순모음화 관련 연철·분철 표기의 음운론적 인식 고찰, **언어학연구 22**, 한국중원언어학회

4. 허용, 김선정.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서울: 박이정.

5. 허용, 김선정. (2013). **대조언어학.** 안양: 소통.

6. Abduazizov, A. O‘zbek tili fonologiyasi va morfonologiyasi. Toshkent: O‘qituvchi. 1992

7. Azizov, O. Tilshunoslikka kirish. Toshkent: O‘qituvchi. 1996